



남양유업 감축을 놓고 전남지역 낙농가와 갈등을 빚은 남양유업 나주공장. 낙농가들의 규탄대회를 앞둔 1일 원유 납품 재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 남양유업, 전남 낙농가 원유 다시 받는다

### 규탄대회 1시간 앞두고 납품 재계약 극적 합의 원유 매일 1000t 과잉 생산... 불씨 여전히 남아

전남지역 낙농가와 남양유업 나주공장 간 원유 납품 재계약이 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남지역 400여 낙농가가 남양유업 나주공장 앞에서 '남양유업 규탄 결의대회'를 벌이겠다고 예정한 시간을 1시간여를 남겨 놓은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낙농가와 남양유업 나주공장 간 극한 대립은 피하게 됐지만 국내 낙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매일 1000여t이 과잉 생산되고 있어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왜 낙농가들이 반발하는가? = 전남지역 70여 낙농가는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매일 원유(原乳) 67t을 남양유업 나주공장에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나주공장이 재계약을 거부했다. 10월 1일 자부터 낙농진흥회를 통해 남양유업 나주공장에 원유를 한 방울도 공급할 수가 없게 되자 낙농가들이 규탄 집회를 준비했었다. <광주일보 10월 1일 7면>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매일 전남지역 농가 67t을 포함해 87t의 원유를 낙농진흥회로부터 납품받아 왔다.

현재 낙농가에 원유가 유가공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개별직납(직송) ▲생산자조합(낙농조합)으로 납입하는 방법 ▲낙농진흥회를 통해 납입하는 방법 등 3가지다. 전남지역 400여 낙농가들 중 전라북도에 있는 유가공 업체로 직납하는 60

여 농가를 제외하고는 340여 농가가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를 납품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낙농진흥회는 원유를 계약 공급하며 잉여 원유를 비축하고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전국 1500여 농가와 구매계약을 맺고 일일 1500여t의 원유를 22개 유가공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가공 업체와 낙농진흥회가 계약을 파기하면 낙농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유동수 나주시 낙우회 사무국장은 "남양유업이 원유를 지역 낙농가를 배제하고 다른 지방에서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모든 낙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가공업체도 피해 커 = 원유 과잉 공급에 따른 남양유업 등 유가공업체 피해도 비슷하다.

현재 전국 6000여 곳의 낙농가에서 매

일 6000t의 원유가 생산되는데, 소비는 5000t에 그쳐 1000여t이 남아돌고 있다.

전국 유가공 업체들은 최근 낙농대표들과 과잉 생산되고 있는 원유감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

농가에서 원유를 1kg당 1100원 가량에 매입해 우유를 만들어 팔아 겨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유가공 업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잉여 물량으로 분유를 만들 경우 1kg당 65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분유로 가공할 경우 여러 나라 업체의 제품과 경쟁해야 한다.

남양유업 나주공장 한 관계자는 "회사가 전국에서 매일 1000t의 원유를 매입하는 데 이중 매일 200여t이 남아 현재 재고량이 6000t에 이른다"면서 "회사 생존을 위해서 감축은 불가피하며, 직송물량에 대한 10%(60여t)는 이미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나주=손영철기자 ycson@

## 나주시 내년 정부 예산 683억원 반영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47건 관련예산 683억원이 반영됐다. 또 전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나주예산 51억원이 포함됐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문화관광분야 사업은 ▲나주잠사(蠶絲)를 활용한 근대문화유산 재생(49억원)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에 대비한 식산 탐방대로 조성(9억원) ▲다산 정약전·약용형제가 헤어진 율정점 조성사업(5억원) ▲영성테마파크 한옥 숙박체험장 조성(6억5000만원) 등이다.

또 농촌활력화를 위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6개년 26억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25억원)이 반영됐다.

재난재해 분야에는 오봉·은사 소하천 정비(36억원), 환경 분야에는 혁신산단

폐수처리장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14억원), 공산지구 광역상수도 확장 50억원, 장성천 마을 하수처리시설(54억원), 신안덕읍 하수처리시설(5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강인규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이낙연 전남도지사에게 건의한 전남도 종합사격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비(4억5000만원)와, 국립 나주박물관 진입도로 확장공사비(30억원) 등 나주예산 51억원도 최근 전남도 제1회 추경에 포함됐다.

강인규 시장은 "모든 공무원이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제때 대응하고, 신중한 국회의원과 김옥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등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인 결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 중앙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나주시, 생활체육시설 개방 시간 늘려

나주시가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활용 개방시간과 대상을 연장,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종합 스포츠과내 다목적 체육관과 생활체육관에 대해 야간 개방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종 동호회에서 사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밤 10시까지 허가할 계획이다.



나주 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 역시 개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로 앞당길 방침이어서, 내년 3월월부터는 시민들이 새벽반 강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합 운동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방을 확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구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동호회와 시민 생활체육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방을 확대, 시민들이 친근하게 스포츠 시설과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원유 감축 공감하나 지역낙농가와 상생 약속 지켜야"

박석오 낙농육우협회 전남지회장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박석오 전남도지회장은 1일 남양유업의 계약 파기와 관련해 '지역 낙농가와 대기업 간의 상생'을 강조했다. 원유(原乳) 과잉 공급에 따른 감축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전남도도와 나주시가 유가공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과격적으로 지원해 줘 취득세 면제와 기반시설을 제공해 줬다"면서 "하지만 남양유업이 이례해서 지역 원유를 거부하고 위쪽 지역에서 원유를

가져와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니 낙농가들이 반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행히 1일 예정한 항의 집회전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냈지만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는 원유를 놓고 유가공 업체들이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원유 감축에 따라 전남지역 낙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지역 대부분 낙농가는 지난해 낙농진흥회와 3년 납품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유 구입을 거절하더라도 피해를 보

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유 감산 정책으로 인해 낙농가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 낙농가들은 대부분 낙농진흥회를 통해 납품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대기업을 제외하면 변변한 유가공 공장이 없기 때문이다.

유통 경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남양유업이 낙농진흥회의 원유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지역 낙농가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회장은 "초과 생산되는 원유를 감축하는 것은 공감 하지만 나주공장이 지역과의 상생을 약속했듯이 어려운 일은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



나아가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 목사고을시장 4일 '들썩들썩 토요일문화장터'

나주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사업단(단장 조진상)은 4일 오후 2~5시 '들썩들썩' 토요일 문화장터를 연다.

올해 4번째로 열리는 토요일 문화장터는 광주연시안 요넬클럽의 요들송 공연을 비롯해 7080 라이브 밴드, 비보이 댄스, 혼성중창, 전통국악 공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천연염색과 전라도 전통 텃밭갈치 만들기, 나무물고기 색칠하기 등이 열린다.

사업단은 축제를 보러온 시민과 관광객,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한다. 나주 명소를 둘러보고 시장에 오면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 이벤트와 '매력넘치는 우리시장' 앱 설치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참고교육부모회 나주지회의 개미장터와 나주 차문화협회의 전통 차 시음회를 비롯해 대인예술 아시안 별장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메이커스와 셀러들의 상품도 판매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민흥	267-4748
백운	673-4698
동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약구독\_062 220-0550